

일본어 수동태 학습과정에서 보이는 모어의 영향

—한국인 학습자의 인식조사를 바탕으로—

신은정*

(e-mail : alashin@hanmail.net)

<목 차>

- | | |
|----------------------------|--------------------------|
| 1. 서언 | 3.1. 연구방법 및 범위 |
| 2. 한·일 양 국어의 수동태의 유사성과 상이점 | 3.2. 설문조사 결과 및 모어 영향의 양상 |
| 3. 한국인 학습자의 수동태에 대한 인식조사 | 4. 결과분석 |
| | 5. 결어 |

키워드: 受動態(the passive voice), 母語の影響(influence of mother language), 日本語の特質(the peculiarities of Japanese), 誤用の持続性(the persistence of abuse), 認知的教育(cognitive teaching)

1. 서언

한국어 모어 화자가 일본어를 학습하는 데 있어 양국언어의 어휘 및 문법구조의 유사성이 일본어 습득을 용이(容易)하게 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학습항목에 따라서는 학습자가 두 언어의 문법구조의 유사성을 지나치게 확대 적용함으로써 오히려 습득이 더디게 되거나 부자연스러운 일본어를 구사하면서도 스스로가 문법적인 오류를 인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다. 따라서 다른 언어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일본어의 특질에 인지적으로 주목하지 못하면 학습자가 일본어를 습득하는 데 있어 모어의 간섭 때문에 발생하는 오용이 오

* 동덕여자대학교, 시간강사, 일본어교육

랜 시간 동안 학습을 한다고 해도 좀처럼 개선되기 어려운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한국인 학습자가 일본어를 학습할 때 모어의 영향으로 오류가 발생하기 쉽거나 의미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항목 중의 하나로 수동태를 들 수 있는데, 그중에서도 한국어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자동사의 수동태 및 피해의 수동문의 경우 이러한 일본어 문장을 문법적으로는 이해하고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상급의 일본어 학습자라고 해도 학습자가 스스로 자신의 발화에 적극적으로 수동태를 사용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은 서로 비례하지 않는다.

이러한 배경에서 한국인 학습자가 일본어의 수동태를 보다 안정적으로 습득하기 위해서는 교사는 어떤 측면에서 모어의 간섭을 예측하고 일본어의 특질을 어떻게 이해시켜야 하는지에 관한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물론 80년대부터 지금까지 다양한 측면에서 한·일 양 국어의 대조연구¹⁾가 이루어져 왔지만 주로 문법구조의 특질을 밝히는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고 이러한 연구의 결과를 어떻게 교육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지와 관련해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 연구는 많이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인 학습자에게 내재(內在)되어 있는 일본어 수동태의 의미와 역할에 관한 의식을 조사하고 한국인의 모어가 일본어의 수동태 학습 과정에서 어떠한 양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분석을 통해 일본어 수동태의 교수방안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2. 한·일 양 국어의 수동태의 유사성과 상이점

한국어와 일본어는 표현형식이나 의미 등에 있어 세부적으로는 다른 점이 존재하지만 문(文의) 구조 면에서는 유사한 점이 많다. 다음은 두 언어의 문구조상의 유사성을 찾아볼 수 있는 예문²⁾으로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문인데 어

1) 안중환(1999) 『韓·日 被動態 対照研究 : 피동문 변형능력의 차이 및 그에 따른 영향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pp.1-197.

임우경(1988) 『日本語初歩学習者の誤謬に関する研究』,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pp.1-53.

大塚俊秀(2003) 「日本語の各ヴォイス形態の類似性と意味の連続性,および韓国語のヴォイス形態との対照比較研究 : 日本語教育と誤用分析に関連して」 『일본연구』 18집, 중앙대학교일본연구소, pp.367-407.

菅野裕臣(1982) 「朝鮮語(ヴォイス)」 『講座日本語学10』, 明治書院, pp.280-291.

순이나, 격(格), 술어절의 구조가 거의 동일하며, 양국언어 모두 (i)~(iv)와 같이 수동문으로 표현하는 것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 (i) 警察が犯人を捕まえた。 (i)' 犯人が警察に捕まえられた。
- (ii) 경찰이 범인을 잡았다. (ii)' 범인이 경찰에게 붙잡혔다.
- (iii) 太郎が花子を殴った。 (iii)' 花子が太郎に殴られた。
- (iv) 타로가 하나코를 때렸다. (iv)' 하나코가 타로한테 맞았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예문에서는 두 언어의 상이점이 엿보인다.

- (v) 彼は妻に逃げられた。 (v)' 아내가 도망갔다.
- (vi) 彼は、子供の時、父に死なれた。 (vi)' 그는 어렸을 때 아버지를 여의었다.
- (vii) 彼は弟にお菓子を食べられた。 (vii) 동생이 그의 과자를 먹었다.

위의 예문을 보면 모두 동일한 상황에 대해 기술하고 있지만, 일본어는 모두 수동문인 반면 한국어는 능동문인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許(2004)는 양언어의 수동문의 특징에 대해 다음과 같이 분석하고 있다.

- 첫째, 일본어는 자동사라도 수동문이 성립될 수 있지만, 한국어는 자동사의 피동문이 성립하지 않는다.
- 둘째, 어떤 사항을 표현할 때에 일본어는 동작의 영향을 받은 객체를 주어로 두는 경향이 있지만, 한국어는 동작을 행한 주체를 주어로 두는 경향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어는 동작의 주체를 확실하게 표시하려는 타동사 표현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한국인 학습자는 동작의 방향성에 의한 능동과 수동의 대립을 나타내는 태의 개념이 희박하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일본인은 어떤 경우에 수동태를 사용하는가. 이에 대해 福田(2007)³⁾는 일본인이 수동문을 사용하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2) 許明子(2004) 『日本語と韓国語の受身文の対照研究』、ひつじ書房、pp.1-7. 에서 제시된 예문임.
 3) 富田英夫(2007) 『日本語文法の要点』、くろしお出版、pp.138-140.

- a. 시점을 하나로 맞출 때
- b. 피해를 간접적으로 나타내고자 할 때
- c. 정보 가치가 낮은 주어를 생략하고 표현할 때

위의 연구에서 일본인이 수동문을 사용하는 경우로 문의 시점을 하나로 맞추는 것에 대해서 福田(2007)⁴⁾는 다음과 같은 예문을 제시하고 있다.

- (1) ? 今日、宿題を忘れて、先生が私を注意しました。
- (2) ? 部屋で寝ていた時に、電話が私を起こしました。
- (3) ? 昨日、町を歩いている時に、知らない人が私に話しかけました。
- (4) ? 92年に高校ができ、さらに2005年には人々は大学も建てました。

예문 (1)~(4)는 하나의 동일한 시점에서 사태를 표현하는 것이 사물을 이해하기 쉽다고 여기는 일본어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화자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주어를 선택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다음 예문(5)~(8) 과 같이 전환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기술하고 있다.

- (5) 今日、宿題を忘れて、先生に注意されました。
- (6) 部屋で寝ていた時に、電話に起こされました。
- (7) 昨日、町を歩いている時に、知らない人に話しかけられました。
- (8) 92年に高校ができ、さらに2005年には大学も建てられました。

위의 예문에서 동일한 시점이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주어를 가리키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다시 말하면 일본어의 수동태는 동작의 주체가 무엇인가에 영향을 주는 경우 동작을 한 주체가 문의 주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동작을 받는 대상을 주어로 하여 어떠한 사태를 표현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문의 주어는 어떤 주체가 행한 결과의 영향을 받는 대상으로 그 주어에 시점의 방향을 두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는 피해를 간접적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일본어의 수동문도 결국은 어떠한 동작이 행해지고 그 동작의 영향을 받은 주체를 문의 주어로 두는 일본어의 특질 안에서 설명

4) 福田英夫(2007)、前掲書、p.4.

되어 진다고 볼 수 있다.

반면 한국어의 피동문은 학자들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이들 사이에서 엮볼 수 있는 공통된 관점으로 손(2016)⁵⁾은 한국어의 피동은, ‘주어로 표현되는 대상이 다른 주체에 의해 움직인다’는 것을 뜻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즉, 한국어의 피동문은 주어가 ‘~게 되어진다’라는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한국어에서는 피해 사실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거나 자동사에 의한 수동태 표현을 찾아보기 어렵다.⁶⁾

따라서 한국어에서 찾아볼 수 없는 일본어 수동문의 주어의 의미와 역할에 관한 개념이 한국인 학습자들에게 얼마나 인지적으로 학습되고 강화되어 있는가 하는 문제는 일본어 수동태의 습득과정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임을 예측하게 한다. 그러므로 한국인 학습자에게 한국어에는 존재하지 않는 자동사의 수동문 및 간접수동의 의미와 기능에 대해 이해시키고 일본어가 가지는 특질에 주목하기 위해서는 교사는 한국어와 일본어의 유사성에 가려진 상이점에 대해 비교대조론적인 측면에서 다양한 예문을 제시하고 이러한 수동태가 사용되는 장면의 특성을 인지적으로 교육할 필요성이 있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본 연구는 일본어의 수동태를 습득하는 데 있어 모어의 영향이 어떠한 양상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일본어를 3년 이상 전공하고 있는 중급 이상의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일본어 수동태의 의미에 대해 내재(內在)되어 있는 학습자 인식을 단계적으로 조사하고, 학습자가 산출한 수동태 구문에서 엮보이는 모어의 영향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일본어 교육방안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3. 한국인 학습자의 수동태에 대한 인식조사

3.1. 연구방법 및 범위

기초일본어 수업을 통해 일본어의 문법에 대한 이해가 선행된 후 기본적인

5) 손자연(2016), 『구문 제시를 통한 한국어 피동문 교육 방안 연구』, 한림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pp.9-11.

6) 오치키미코(2016), 『일본어 피해 피동의 한국어 대응표현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2-4.

회화연습이 이루어진 학습자를 대상으로 일본어의 수동태에 대한 이해 정도와 실질적인 발화상황에서의 실현 가능성을 예측하기 위해 대학에서 일본어를 3년 이상 전공하고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그림1>과 같이 단계에 따라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그림1> 설문조사 단계

설문 대상자는 모두 7명으로 본 조사는 질문지에 제시된 항목의 선택비율에 대해 통계적 처리를 하는 기존의 양적인 설문조사와는 달리 한국인 학습자들이 일본어 수동태를 학습하고 습득해 가는 과정에서 그들의 모어인 한국어가 어떠한 양상으로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기 위해 질문 문항이 모두 주관식 문항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조사 진행 후 각각 개별적인 면접을 통한 질적인 분석 과정이 요구되는 관계로 설문 대상자 인원수에 한계를 가지고 있다. 대상자는 모두 일본어능력시험(JLPT) 3급 이상의 자격을 소지하고 있는 학습자들로 그 중 2명의 학습자는 1급의 자격을 가지고 있었고 1명은 2급의 자격을 소지하고 있었다.

학습자조사는 우선 일본어의 수동태에 대해 한국인 학습자가 인식하고 있는 의미상의 이미지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학습자들에게 내재(內在)되어 있는 이러한 의미결합이 발화나 작문을 통해 수동문을 생성하는 데 있어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 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설문 1단계에서는 일본어의 수동문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거나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의미상의 이미지를 표현하도록 하였다. 1단계의 문항에 대한 설문을 진행하기 전에 일본어의 수동문이라는 점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의미에 대해 좀 더 자세하고 심층적인 기술을 위해 한국어로 기술하는 것을 허용하였다.

설문 2단계는 일본어 수동형 동사가 제시되었을 때 그 동사가 쓰이는 상황

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단계로, 일본어 수동문에 대한 문법적인 이해정도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학습자가 실질적인 발화 안에서 일본어의 수동문을 이용한 적극적인 정보 발신이 가능한지 알아보기 위한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즉, 수동형의 동사만 제시되어도 그 동사가 사용되는 상황을 연상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봄으로써 습득의 안정성을 가늠할 수 있게 하였다. 따라서 조사 중에 앞선 정보에 의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최대한 배제하기 위해 일본어 수동태 구문을 제시하고 의미를 해석하는 문법적인 이해정도를 알아보기 위한 조사를 2단계 뒤로 배치하였다. 설문 2단계에서는 국내에서 출판된 6종의 초급문법 및 회화교재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동태 예문에서 제시 빈도가 높았던 12개의 동사를 추출하여 각 동사의 사전형을 보고 수동형으로 전환하게 한 뒤 그 단어를 이용한 문장을 일본어로 작성하거나 일본어로 작성이 어려운 경우는 한국어로 해당 수동형의 단어가 사용되는 상황이나 장면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도록 하였다. 즉 수동형의 동사만으로 학습자가 그 동사의 의미와 유추되는 상황을 결합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것을 통해 수동태에 대한 습득의 정도를 예측하고자 하였다.

설문 3단계에서는 설문 2단계에서 제시하였던 동사가 포함된 일본어 수동태 문장을 한국어로 해석하게 하여 일본어 수동문에 대한 문법적인 이해도를 측정하고자 하였다. 즉 설문 3단계와 2단계는 문법적인 이해도와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발화 가능성에 대한 상관관계를 측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설문 4단계에서는 한국인 학습자들이 동작의 방향성에 의한 능동과 수동의 대립이나 문의 시점을 하나로 통일하기 위하여 동작의 영향을 받은 객체를 주어로 두는 일본어 수동문의 특질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설문 3단계에서 다루어진 동일한 문장에서 실질적인 동작이나 행위를 한 주체가 누구인지만을 고르도록 하였다.

3.2. 설문조사 결과 및 모어 영향의 양상

3.2.1. 일본어 수동문의 의미에 대한 인식

일본어의 수동태에 대해 한국인 학습자가 인식하고 있는 의미상의 이미지를 알아보기 위한 항목에 대해 응답자의 대부분이 ‘~해지다’ 또는 ‘~(를) 당하다’, ‘무엇인가에 의해 ~하게 되다’, ‘시켜서 하는 것’ 등의 답을 기재하였다.

이 결과를 보면 조사 대상자들이 일본어 수동문에 대해 가지고 있는 표준적

인 생각은 ‘주어로 표현되는 대상이 다른 주체에 의해 움직인다’ 라는 한국어의 피동구문의 특질과 매우 유사함을 알 수 있다. 즉 한국인 학습자가 일본어 수동문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의미상의 이미지는, 수동태로 표현된 동사의 행위를 한 주체가 있고, 동작이 일어난 결과 그 영향을 받은 주어에 시점을 두고 있는 일본어의 특질에 대한 이해보다 문장의 주어가 ‘~게 되어지다’ 라는 이미지가 매우 지배적으로 내재(內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3.2.2. 일본어 수동형 동사를 이용한 정보 발신의 가능성

설문 2단계에서 제시한 동사를 수동형으로 전환하고 그 동사를 활용한 문장을 일본어로 작성하거나 일본어로 작성이 곤란한 경우 한국어로 해당 수동형의 동사가 사용되는 장면에 관해 기술한 결과를 정리하면 <표1>과 같다.

<표1> 동사의 수동형을 활용한 예문작성

동사	수동형 오답 비율	부적절한 예문 비율
1. 踏む	1(14%)	0(0%)
2. ほめる	2(28%)	0(0%)
3. 行く	0(0%)	7(100%)
4. 来る	0(0%)	4(57%)
5. 食べる	0(0%)	5(71%)
6. 死ぬ	0(0%)	5(71%)
7. 泣く	0(0%)	5(71%)
8. 作る	0(0%)	2(28%)
9. 盗む	0(0%)	1(14%)
10. 呼ぶ	0(0%)	1(14%)
11. 降る	1(14%)	2(28%)
12. 言う	0(0%)	2(28%)

<표1>의 결과를 보면 「行く」「来る」「食べる」「死ぬ」「泣く」의 경우 수동형태로 전환하는 활용형에는 응답자의 오류가 전혀 없었으나 해당 동사

를 이용해 일본어 문장을 만들거나 그 동사가 사용되는 장면에 관해 기술하는 과제에서는 50%를 넘는 매우 높은 비율의 오답률을 보였다. 다시 말해 문장생성에서 높은 오답률을 보인 동사의 경우 학습자가 실질적인 대화 안에서 적극적으로 수동형을 활용해 정보를 발신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적고, 아직 안정적으로 습득되지 않다는 것을 예측하게 한다.

3.2.3. 일본어 수동문에 대한 문법 이해도

<표2> 일본어 수동문에 대한 문법 이해도

동사	예문	해석 오답률
1. 踏む	電車の中で隣の人に足を踏まれました。	0(0%)
2. ほめる	子供の時に父によくほめられました。	0(0%)
3. 行く	乗ろうとしていたバスに行かれてしまいました。	1(14%)
4. 来る	ゆうべ友だちに來られて宿題ができませんでした。	0(0%)
5. 食べる	食べようと思っていたケーキを弟に食べられてしまいました。	1(14%)
6. 死ぬ	父に死なれて学校をやめなければならなくなりました。	0(0%)
7. 泣く	赤ちゃんに泣かれて昨夜ちっとも眠れませんでした。	0(0%)
8. 作る	これは何で作られていますか。	0(0%)
9. 盗む	最近電車の中で財布を盗まれる事件がよくあるので、気をつけてください。	0(0%)
10. 呼ぶ	部長に呼ばれて、部長室へ行ってきました。	0(0%)
11. 降る	雨に降られて風をひいてしまいました。	0(0%)
12. 言う	東京は物価が高いと言われています。	0(0%)

3.2.2.의 조사 결과와 비교하여 응답자들의 일본어 수동문에 대한 문법적 이해도와 실질적 발화에서의 활용 정도가 비례하는지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일본어 수동문을 한국어로 해석하는 과제를 수행한 결과는 <표2>와 같다.

<표2>의 결과를 보면 <표1>에서는 수동형 동사를 이용한 예문을 만드는 문제에 어려움을 보였으나 해당 동사가 활용된 일본어 문장을 한국어로 해석

하는 과제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응답자가 적절한 대답을 하였다. 단지 「行く」와 「食べる」의 문장에 대해 1명의 학생이 부적절한 해석을 하였는데 「行く」에 대해선 「~가게 되었다」, 「食べる」의 문장에 대해선 「~먹게 되었다」는 응답을 통해 한국어 피동문이 가지는 모어의 영향에 의한 혼동임을 엿볼 수 있다.

3.2.4. 일본어 수동문의 동작주(動作主)와 주어에 대한 이해도

3.2.3.에서 제시한 동일한 일본어 문장 안에서 동작의 주체가 누구인지 고르는 과제수행을 통해 동작의 방향성에 따른 수동의 성립 및 동의 영향을 입은 주어에 대한 인식의 여부를 조사한 결과는 <표3>와 같다.

<표3> 일본어 수동문의 동작주와 주어에 대한 이해도

예문	오답률
1) 電車の中で隣の人に足を踏まれました。	2(28%)
2) 子供の時に父によくほめられました。	0(0%)
3) 乗ろうとしていたバスに行かれてしまいました。	1(14%)
4) ゆうべ友だちに來られて宿題ができませんでした。	1(14%)
5) 食べようと思っていたケーキを弟に食べられてしまいました。	2(28%)
6) 父に死なれて学校をやめなければならなくなりました。	2(28%)
7) 赤ちゃんに泣かれて昨夜ちっとも眠れませんでした。	0(0%)
8) これは何で作られていますか。	6(85%)
9) 最近電車の中で財布を盗まれる事件がよくあるので、気をつけてください。	0(0%)
10) 部長に呼ばれて、部長室へ行ってきました。	1(14%)
11) 雨に降られて風をひいてしまいました。	2(28%)
12) 東京は物価が高いと言われています。	3(42%)

위의 <표3>의 결과를 보면 예문(8) 「これは何で作られていますか。」의 동작의 주체를 찾는 문항에서 1명을 제외하고는 5명은 ‘これ’로 대답하였고, 다른 1명은 무응답으로 행위의 주체를 표시하지 못하였다.

이 결과를 통해 동작을 받는 주어가 무정명사일 경우 그것에 대응하는 한국어의 수동태가 존재하므로 비교적 번역상의 오류는 적었으나 동작의 주체를 찾아내는 과제에서는 정보의 가치가 낮은 주체를 생략하고 표현하는 일본어의 무정물 주어의 수동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함을 알 수 있었다.

4. 결과분석

일본어의 수동태는 학자의 분류기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크게 직접수동과 간접수동으로 나뉘며⁷⁾, 일본어의 자동사의 수동태와 같은 형식은 한국어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3.2.2.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자동사의 수동태에 대한 의미를 이해하는 데 있어 모어의 영향을 엿볼 수 있었는데, 설문지에 제시된 동사 「行く」「来る」「死ぬ」「泣く」의 경우 수동형 전환에는 오류가 없었으나 50% 이상의 응답자가 「～行かれる」「～來られる」「～死なれる」「～泣かれる」에 대해 의미와 예문을 잘못 작성하거나 이러한 수동태가 사용되는 장면의 특성에 대해 적절하게 기술하지 못하였다.

학생들의 의미 기술을 보면 각각의 동사에 대해 「～가게 되다」「～오게 되다」「～죽임을 당하다」「～울게 되다」 등의 의미로 기술하고 있어 ‘주어가 ~에 의해 어떻게 되다’라는 한국어의 피동의 의미가 강하게 내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물론 주어가 「～게 되다」라는 의미영역에 해당하는 일본어 수동문도 존재하지만, 응답자 중 일본어능력시험 1급의 자격을 소지한 상급 학습자 경우도 이와 같은 의미결합의 오류로 인해 일본어 예문을 작성하거나 해당 수동태가 사용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적절한 기술을 하지 못한 조사 결과를 통해 모어인 한국어의 피동구문의 의미가 일본어를 습득해 가는 과정에서 오랫동안 지속성을 가지고 학습자 언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유추할 수 있다.

반면 「～行かれる」, 「～來られる」, 「～死なれる」, 「～泣かれる」가 사용된 일본어 문장을 한국어로 해석하는 문항에 대해서는 거의 오류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는 「降られる」, 「來られる」, 「泣かれる」와 같은 동사들은 대부분

7) 庵功雄, 外(2000) 『日本語文法ハンドブック』、スリーエーネットワーク、pp.294-299.

의 초급 교재에서 피해의 수동문이나 간접 수동문의 예문으로 자주 제시되는 어휘라는 점에서 일본어 수동문을 한국어로 해석하는 과제에 대해서 오답률이 낮았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踏まれる」, 「ほめられる」, 「盗まれる」 등은 「밟히다」, 「칭찬받다」, 「도둑맞다」 등과 같이 대입이 가능한 한국어가 존재하기 때문에 해석의 오류가 낮았을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行かれる」 「來られる」 「食べられる」 「死なれる」 「泣かれる」 등의 동사만 제시되었을 때 해당 동사를 이용한 일본어 문장을 만드는 과제에 대해서는 응답자 7명 중 4~5명 이상이 적절한 문장을 만들어내지 못하였다. 그중에서도 「行かれる」 동사에 대해서는 응답자 전원이 모두 부적절한 문장을 작성함으로써 일본어 수동문에서의 동작의 주체와 동작의 영향을 받은 주어와의 관계에 대한 이해가 전혀 내재화되어 있지 않음을 엿볼 수 있었다.

그렇다면 일본어 문장을 한국어로 해석하는 데 있어 오류를 범하지 않은 학생들이 해당 어휘가 수동형의 단어로만 주어졌을 때 그 상황에 대한 이미지 형성이 즉각적으로 성립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학습자들이 일본어의 수동태에 대해 문법적으로는 이해하고 있으나 그것을 자신의 발화로 표출하는 과정에서는 모어에 존재하지 않은 개념에 대한 인지적인 부하가 뒤따르기 때문임을 예측하게 한다. 즉, 자연스럽게 두 언어의 유사성만을 확대하여 적용함으로써 일본어만이 가지는 특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 인지적으로 학습하고 연습을 강화하지 않으면 일본어 수동태 구문은 습득과정에서 모어가 지속성을 가지고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단지 학습시간에 비례해서 안정적으로 습득할 수 있는 학습항목이 아니라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한국어나 일본어 모두 수동문과 능동문의 교체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직접 수동태와는 달리 한국어에서는 수동태로 교체할 수 없는 자동사의 수동태 및 피해의 수동태의 경우 학습자의 인식에 변화를 주기 위해 교육 현장에서 다양한 교육방법이 요구되어 진다.

5. 결어

한국인 학습자의 일본어 수동태에 대한 인식조사를 통해 특히 일본어 자동사의 수동태 및 피해의 수동태에 대해 모어의 특성이 지속성을 가지고 일본어

습득과정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엿볼 수 있었으며 이러한 영향은 일본어를 학습한 시간 및 일본어 능력과 비례해서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교육 현장에서 초급학습자의 인지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국어의 피동문과 유사성이 많은 직접수동문을 중심으로 한 문법만 강조하여 설명하기 보다 일본어 수동태 구문이 쓰이는 보다 구체적인 장면이나 동사를 다양하게 제시하고⁸⁾ 동작을 한 주체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 동작의 영향을 받은 객체가 주어로서 어떠한 시점을 가지는지에 대해 풍부한 예문을 통해 연습할 수 있는 교육적 방안이 필요하다. 더군다나 시중에 출판되고 있는 대다수의 초급문법 교재에서는 자동사의 수동태에 대한 예문이 없거나 매우 미흡하며 피해의 수동을 설명하는 예문도 「來る」, 「泣く」, 「降る」 등 한정적인 동사에 국한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교사가 개별적으로 다양하게 학습 자료를 제시하며 설명하지 못한다면 한국인 학습자의 경우 일본어를 통해 일본인의 심리와 사회적 관계의 특성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교사는 한국인 학습자가 한국어와 일본어가 가지는 무수한 유사성에 가려진 일본어의 특질에 주목할 수 있도록 언어구조뿐만 아니라 수동태 문장의 언어적 기능이 무엇인가에 초점을 둔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교수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참고문헌】

- 손자연(2016) 『구문 제시를 통한 한국어 피동문 교육 방안 연구』, 한림대학교 대학원석사논문, pp.9-11.
 안중환(1999) 『韓·日 被動態 對照研究—피동문 변형능력의 차이 및 그에 따른 영향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pp.1-197.

8) 예를 들면, 옆자리의 사람이 물을 엿질러 곤란하거나 급하게 확인할 자료가 있는데 담당자가 회사를 걸근한 상황을 제시했을 때 학습자가 ‘溢す’ 나 ‘休む’ 동사를 활용해 행위의 주체자와 영향을 받은 객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일본어 수동구문을 생성할 수 있는지 확인하거나, ‘溢す’를 ‘溢される’로 ‘休む’를 ‘休まれる’로 동사를 단순히 변환하는 연습에 그치고 있는 기존 교재의 과제에서 좀 더 나아가 ‘溢される’ 나 ‘休まれる’라는 동사가 제시되었을 때 학습자가 이러한 동사가 사용될 수 있는 상황을 함께 연결지어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는지 교수자가 확인하는 인지적 과정을 강화한다면 학습자는 한국어와는 다른 일본어만이 가지는 특질에 좀 더 의식적인 주의를 기울일 수 있을 것이다.

- 오치키미코(2016) 『일본어 피해 피동의 한국어 대응표현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2-4.
- 임우경(1988) 『日本語初歩学習者の誤謬に関する研究』, 한국외국어대학교대학원석사논문, pp.1-53.
- 호사카 아키코(2005) 『한국인 일본어 학습자의 수동태 인식 차이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교육대학원석사학위논문, pp.58-61.
- 庵功雄, 外(2000) 『日本語文法ハンドブック』, スリーエーネットワーク, pp.294-299.
- 大塚俊秀(2003) 「日本語の各ヴォイス形態の類似性と意味の連続性,および韓国のヴォイス形態との対照比較研究—日本語教育と誤用分に関連して—」 『일본연구』 18輯, 중앙대학교일본연구소, pp.369-407.
- 菅野裕臣(1982) 「朝鮮語(ヴォイス)」 『講座日本語学10』, 明治書院, pp.280-291.
- 許明子(2004) 『日本語と韓国語の受身文の対照研究』, ひつじ書房, pp.1-7.
- 富田英夫(2007) 『日本語文法の要点』, くろしお出版, pp.138-140.

논문 투고 일자 : 2019. 12. 30.
논문 심사 일자 : 2020. 01. 28.
게재 확정 일자 : 2020. 01. 30.

< 要 旨 >

日本語の受動態の学習過程から見られる母語の影響
- 韓国人学習者たちの認識調査に基づいて -

申恩淨

韓国語母語話者が日本語を学習するにあたって、両国の言語の語彙及び文法構造の類似性が日本語の習得を容易にするのは事実である。しかし、母語の干渉によってかえって習得が遅くなったり、特に二つの言語の文法構造の類似性を拡大して適用することで、不自然な日本語を駆使しながらも、学習者自身は認知にくい場合が少なくない。それゆえ、他の言語では見られない日本語の特質に注目できなければ、学習者が日本語を学ぶ上で母語の影響から発生する誤用が長期間学習するとしてもなかなか改善しにくい場合がしばしばある。

韓国人学習者が日本語を学ぶ過程で、困難を感じる項目として受動態が挙げられるが、上級レベルの日本語の学習者の場合にも受動態に対する文法的な理解と発話レベルが必ずしも比例しない。従って、本研究では韓国人学習者に内在されている受動態に関する意識を調査し、それらの意識が日本語受動態の習得にどのような影響を及ぼすかについての分析を通じて日本語の受身態の教授方案について考察しようとする。

分析の結果、韓国人学習者が日本語の受動態について持っている支配的な意味は、“主語で表現される対象が他の主体によって動く”という韓国の被動構文の特質と非常に類似していることが分かった。このような母語の影響は、韓国語には存在しない自動詞の受動文の形成を妨害し、日本語の文章を韓国語に解釈するのに不自由のない学生たちが同一の自動詞を用いて日本語の受動態の文章を生成するに当たっては、ほとんど適切ででない答えを記載した。また、行為の主体と行為の影響を受ける対象との関係についての概念が希薄であるため、日本語の自動詞および間接受身文に対する理解が不足していることが分かった。

従って、教師は、比較対照論的な側面から多様な例文を積極的に提示し、このような受動文の言語的な機能が何であるかに焦点を合わせた教育方法を考案する必要がある。

Mother Language Influence on the Learning Process of the Passive Form
-Based on a study of Korean Japanese learners-

Shin, Eun-Jeong

The passive form in Japanese is typically one of the most difficult items for individuals with Korean as their mother language to learn, and even advanced Japanese learners sometimes have limited understanding of passive sentences. With this background,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perceptions of the Japanese language passive form by individuals with Korean as their mother language; determine how such perceptions influence acquisition of the Japanese language passive form; and devise a proper teaching-learning scheme for the Japanese language passive form.

The analysis showed that the prototype image of the Japanese language passive form possessed by Japanese learners with Korean as their mother language was “to be moved by something other than a subject,” which is very similar to Korean passive sentence structure.

Such influence of the mother language interrupts passive sentence formation with intransitive verbs, so a student who has no difficulty interpreting a Japanese sentence with an intransitive verb could have difficulty writing a passive sentence in Japanese with the same intransitive verb.

Furthermore, since the concept of a relation between doer and subject influenced by the action of the doer is not fully understood by Japanese learners, they also have a very limited understanding of intransitive verbs and indirect passive sentences. Therefore, it would be necessary to devise an education plan to teach verbal functions of these passive sentences using various sample sentences from the perspective of comparison/contrast, rather than solely focusing on the linguistic structure of Japanese, a major concern of Japanese textbooks.